

평신도를 위한 신학 / 교리

그리스도의 속죄교리(4)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가? 레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속하는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이다. 죄인이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은 그 피를 성소의 제단에 뿌린다. 그것은 동물의 피가 죄를 사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생명 대신에 동물의 생명을 희생한다는 뜻이 있다. 요 6:53-57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실제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한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피는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의 피가 세계 만민의 죄를 다 속할 수 있는가? 대답은 인간의 모든 생명이 유한한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롬10:12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고 했다.

속죄란 무엇인가? 인간이 죄값으로 받는 형벌을 제거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 교제케하는 것이다. 인간이 죄값으로 받는 가장 큰 형벌은 사망의 고통이다. 첫째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사형을 언도하셨다(창3:19).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고통을 받으셔야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히2:14). 인간이 받는 고난은 죄값으로 오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형벌이었다. 자신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만민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형벌이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김 승 환 1청년부, 예배	010-2748-5218	장 로	김형복 류재천 김형필 윤영호
	박 종 건 2청년부, 교육	010-8537-0370	은 퇴 장 로	김정웅 김주량 남상목
심방전도사	김 정 희 교구, 중보기도	010-2394-4476	명 예 장 로	공순영 김길성 김석현 김정남 김정현 나희태 이복우 조기신 최병철 황상호
	김루디아 교구, 새가족부	010-4534-7250	지 휘	최 영 방성호
교육전도사	김 원 와 영아부	010-9251-6255	피 아 노	김경원 강성희 정현주 최 은
	고 애 란 유치부	010-9267-6413	오 르 간	강성희
	권 창 현 중고등부, 찬양	010-9381-6323	행정사무원	김용희 행정-사무 010-7582-1009
	최 준 혁 유치등부	010-2293-1093	음 향 간 사	정병국 음향 010-4044-8653
			영 상 간 사	추연철 방송-영상 010-2218-3507
			관 리	김형복 관리-차량운행 010-3933-0461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	1부 오전 8시	사 랑 홀 (3층)
	2부 오전 10시	비 전 홀 (2층)
	3부 낮 12시	비 전 홀 (2층)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30분	비 전 홀 (2층)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사 랑 홀 (3층)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30분	사 랑 홀 (3층)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사 랑 홀 (3층)
영 아 부	주일 오전 10시, 12시	영아부실(2층)
유 치 부	주일 오전 10시, 12시	유치부실(1층)
유 초 등 부	주일 오전 10시	사 랑 홀 (3층)
중 등 부	주일 낮 12시	사 랑 홀 (3층)
고 등 부	주일 낮 12시	사 랑 홀 (3층)
청 년 1 부	주일 오후 2시30분	사 랑 홀 (3층)
청 년 2 부	주일 오후 2시30분	사 랑 홀 (3층)

교회 오시는 길



제45권 7호 2016년 2월 14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예수공동체"

www.jesussvl.org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예수공동체”

대한예수교 장로회 꿈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김 동 진 Rev. Kim Dong-ji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발이동남로4번길 12
TEL. 031)714-1004, 9191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주일오전예배

WORSHIP

사회 찬양	1부 김승환 목사	2부 김승환 목사 2부 히 엘	3부 박종건 목사 3부 아이노스
경배와찬양			다 함 께
※ 송 영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 께
※ 교 독 문		110. 선교주일	다 함 께
※ 사 도 신 경			다 함 께
※ 찬 송		37장(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함 께
■ 기도 인도			1부 윤영호 장로 2부 김형필 장로 3부 류재천 장로
교 제 찬 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다 함 께
■ 교 회 소 식			사 회 자
■ 헌 금		505장(은 세상 위하여)	다 함 께
■ 성 경 봉 독		행 13:1-3(신약p.209)	담 당 자
찬 양		“주 날 인도하네”	호 산 나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마세요”	예 루 살 렘
■ 설 교		“우리교회 선교의 비전과 실천”	김동진 목사
※ 찬양과기도			다 함 께
※ 축 도			김동진 목사
※ 파 송 찬 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함 께

※는 일어서 주십시오. / ■ 1부 예배순서

주일오후예배

경배와찬양		테힐라 찬양팀
기 도		김일영 집사
찬 송		407장
설 교		창 32:21-31
		“인생의 후반전”
		박종건 목사
축 도		김동진 목사
파 송 찬 양		“교회를 교회되게”

수요예배

시 간		오후 7시30분
설 교		엡 2:1-7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박종건 목사

금요기도회

시 간		오후 8시30분
장 소		비전홀(2층)
담 당		김동진 목사

새벽기도회

시 간		오전 5시
장 소		비전홀(2층)
담 당		담임목사/교역자

교회 소식

새가족 소개

새로 등록하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로 인도자와 함께 오셔서 담임목사님을 만나주세요.

NO.	성명	주소	인도자	NO.	성명	주소	인도자
21	장영범	중원구	김정자B	25	김민기	분당동	스스로
22	최유선	수내동	김광자	26	김미래	분당동	스스로
23	김지희	수내동	장예지	27	김나래	분당동	스스로
24	오경연	분당동	스스로	28			

꿈과사랑의교회 성도의 다짐

1. 나는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2. 나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예수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3. 나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며 살겠습니다.
4.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2016년도 표어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계21:5)

예배를 새롭게 하소서 / 교육을 새롭게 하소서 / 선교를 새롭게 하소서 / 봉사를 새롭게 하소서

1. 2016선교헌금 작정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2. 2016년 제직위원회 모임: 오후예배후, 비전홀

3. 교육위원회 월례회: 13:50~14:50분, 5층 빌립홀

4. 교사헌신예배: 다음 주일(21일) 오후예배, 비전홀 - 교육부서 부장 및 교사

5. 꿈과사랑의교회 교사대학

- 1학기 개강: 2월21일, 28일(주일오후예배후), 3층 사랑홀
- 21일: 발달심리에 기초한 교회교육(오영숙사모) / 구약을 한눈에(김승환목사)
- 28일: 교사와 멘토링(이론과 실습)(김정연 박사)
- 대상: 교육부서 전교사 및 교사가 되길 희망하는 사람(신청서 본당 로비에 비치)

6. 구역헌신예배 및 구역예배 개강

- 2월28일(주일) 오후예배, 비전홀, 꿈과사랑의교회 전구역
- 예배후 구역장 공과공부, 3층 꿈사랑홀

· 교역자동정

- 교역자 수련회: 2월15일(월), 충남 대전

· 교우동정

- 소천: 한을순권사 자부(이향숙성도, 64세)

교육 및 모임

내 용	시 간	장 소
1청년부 모임	젊은이예배(2시30분) 후	빌립홀(5층)
2청년부 모임	젊은이예배(2시30분) 후	사랑홀(3층)
안수집사 제자훈련	오후예배 후	안수집사회실(6층)
구역장 공과교육	오후예배 후	꿈사랑홀(3층)
안수집사 기도모임	주일오전 8시30분	안수집사회실(6층)
화요중보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1시	한나실(B1층)
수요중보기도모임	수요일예배 후	사랑홀(3층)
목요중보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1시	한나실(B1층)

지난 주 말씀

전 1:2-15 세월이 가도 영원한 것은

전통적으로 전도서 기록자는 솔로몬인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며,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지혜와 명예를 지녔고, 온갖 부귀와 향락을 누린 사람(1:16, 2:7)은 솔로몬 밖에 없다. 대략 쓰여진 시기는 기원전 935년경으로 추정한다. 기록 목적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그는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고(1:2),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옳바르고 행복한 삶임을(12:13) 후대에 가르쳐주기 위해서이다.

1.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허무하다

솔로몬은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작고 연약함, 그리고 그에 따른 허무를 말하고 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헛됨'이다. 여기서 헛됨(헛됨)은 숨, 연기, 증기, 바람 같이 실체가 없고 일시적이거나, 공상과 같이 가치가 없고 이익이 없고 공허하고 헛된 것을 의미한다. 인생은 2가지 면에서 헛된다. ① 끊임없는 반복이다-밥, 빨래, 청소, 목욕, 직업 등 모든 일이 다 허드렛일이요, 반복되는 일이다. ② 나의 욕망이 끝이 없다(8절) "사람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차지 아니하다" 모든 강물이 흐르는데 그 바다를 채울 수 없다. 솔로몬이 말하는 허무와 무력감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이야기다.

2. 해아래 새 것은 없다

해아래 새 것은 없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새 것을 만드실 수 있다. ①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고후5:17) ②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만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다(롬6:4) ③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간다(히10:20) ④ 그래서 장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하실 것이다(계21:5) ⑤ 그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것이다(계21:1) 이렇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3. '위엿 것'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골3:1, 빌3:13을 보라. 내 맘대로 살면 허무한 인생이다. 해아래 새 것이 없지만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을 살자. 매년 맞이하는 새해와 설을 맞이하여 우리가 자신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자!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황미숙 고애란 송순준 민승식 이종순 이복우 서순석 김영임 백금령 김철호 박순희 강두식 나희태 이현우
김순선 한순옥 이창우 김경숙 이희재 김일영 김민지은 최영희 전순호 정상욱 김정근 조원구 나완용 김경림
정진숙 정정순 권오명 김경자 심정자 오병덕 권부월 박남기 박영란 정호발 허정순 채수자 윤영호 한인숙
조영수 전은섭 진병환 박경진 서민수 김주량 신영자 황신혁 최화자 윤중오 김하선 김형필 황기주 남애희
한삼순 서정원 고경현 김상문 손순자 최준혁 이우진 서경희 이서준 김선득 이금란 류재천 황한옥 손명철
송성규 정병운 김영신 한혜원 김정웅 함윤주 이윤희 손명철 이재홍A 무명1

감사헌금 김동진 오영숙 강영옥 홍승희 고애란 김영임 황미숙 류인숙 김석현 최기철 박정숙 강두식 박미영 황한옥
한순옥 방영숙 이영우 이은실 이창우 옥광평 김용래 이신호 강정석 정이용 김정근 조원구 이현우 이호자
정선우 정현주 이종오 남상목 임유순 심재희 김경원 심건우 김영희 진병환 심정자 나완용 김경림 강태원
나승현 나현주 백순희 채수자 서지우 김우중 전경옥 김희주 송해숙 김채란 전명주 김선득 이금란 안원옥
김금래 김형필 손명철 최 양 남애희 방성호 박재순 신남숙 박경진 정춘자A 신정례A 김에스터 무명3

철야헌금 김동진 오영숙 한사랑 권만기 류재천 김철호 박순희 조윤심 황한옥 김정현 이윤주 윤영호 한인숙 무명2

선교헌금 황미숙 김하은 김민석 김선득 이금란 황한옥 손재훈

심방감사헌금 공상보 한영봉 이현희 이동옥 / **일천번제** 황미숙 / **구제헌금** 김은조 이은실

상조헌금 김철호 박순희 장광임 김에스터 권부월 조윤심 유봉순 김성근 주세영 박남기 김영희

* 주일헌금은 주일헌금봉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헌금: 신한은행 100-028-714510(예금주: 꿈과사랑의교회)

헌금 위 원		
1부	2부	3부
신일숙	이화용 민지은 유순중 박경숙 전란숙 정정순 김용래 이윤주	이현희 윤중오 손명철 홍기전 국희중 조명옥 서관선 박양숙 송해숙